

농촌 지역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진로 지원 방안 연구  
- 진로 역량 강화 중심으로 -

한채운  
(울산 남창중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농촌 지역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진로 지원 방안 연구

- 진로 역량 강화 중심으로 -

한채운

(울산 남창중학교)

## 《목 차》

- 1 . 들어가기
- 2 .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
  - 2-1. 다문화 청소년 진로 발달의 특성
  - 2-2.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의 현황
  - 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지원 실태 현황
- 3 . 연구 방법
  - 3-1. 연구대상 및 표집
  - 3-2. 연구 방법
4.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관련 실태 분석
  - 4-1.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4-2.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요구 분석
  - 4-3. 농촌 지역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진로 지원 방안 모색
5. 논의 및 나가기

<Abstract>

**Han Chae Un. 2020. 8. 16. A study on the career support plan for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6, 97-12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provide better career support by operating various careerrelated programs to enhance career development capabilities of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support requirements of multicultural youths. (Ulsan Namchang Middle School)

**[Key words]** : Multicultural youth in rural areas, career support, career-related demands, career capacity enhancement, customized career support measures

## 1.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은 진로 교육법(2015년 6월 22일 제정)의 제정으로 진로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진로 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에 시범 적용된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16. 4. 5.).

그런데 진로 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학생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교육부, 2016. 4. 5.). 소외계층 학생,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정책은 균등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외계층 진로 교육 지원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외계층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과 진로 지원 관련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중학교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발달 현황 및 진로 지원 실태, 진로 관련 요구, 진

로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다문화 학생별 개인적 특성과 집단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발달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개선된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농촌 지역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

### 2.1.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의 특성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민자 가정 청소년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준 또는 진로성숙도는 인종과 다문화 이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Rojewski, 1994). 특히 히스패닉과 아시아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Mau, & Bikos, 2000; Rojewski, 1994).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경우 백인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한편 진로결정 상황에서 높은 부모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eong, 1991). 구체적으로 중국계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Ma와 Yeh(2010)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 실력과 학업능력을 보이는 중국계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진로발달 수준이 떨어지고 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보다는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지지와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계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진로발달 수준과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a, & Yeh, 2010). 국내 연구들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역시 모호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장임숙, 김희재, 2013).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떨어지는 반면, 진로장벽 인식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지민, 오인수, 2013).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조봉환, 2011; 김효영, 2011).

## 2.2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의 현황

### 2.2.1.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인식 현황

2016년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총괄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 포부 수준은 아래에 나타난 <표 1>과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78.1%는 대학교까지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2.9%는 대학원까지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대다수는 대학교 수준 이상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20%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의 6.3%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를 보여서 자녀와 학부모간에 진로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 2016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포부 수준 빈도>

빈도(%)

범주	다문화집단	
	청소년	학부모
고등학교 이하	253(19.0) %	82( 6.3)%
대학교	1,040(78.1)%	1,146(88.1)%
대학원	39( 2.9)%	73( 5.6)%
합계	1,332(100) %	1,301(100)%

출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희망하는 학교의 수준은 아래 <표 2>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라도 충분하다는 응답이었으며(20.8%),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학부모의 경우도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이면 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이 청소년의 비율(3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희망 수준이 ‘4년제 대학’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2016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대학 수준>

빈도(%)

범주	청소년	학부모
전문대라도 충분하다	276(20.8)	245(18.8)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522(39.2)	739(56.8)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167(12.5)	160(12.3)
명문대를 가야 한다	79( 5.9)	45( 3.5)

기타	335( 2.6)	30( 2.3)
무응답	253(19.0)	82( 6.3)
합계	1,332(100)	1,301(100)

출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 2.2.2. 다문화 청소년의 장래 희망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직업을 특정한 직업이 아닌 직업의 특성에 따라 질문한 결과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는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43.7%로 가장 높아서, 학부모들의 경우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자녀의 진로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또 한 가지 차이는 자녀들의 경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21.4%였던 것에 비해 학부모의 경우는 8.8%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린 청소년기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6 장래희망 직업의 특성별 빈도>

빈도(%)

범주	청소년	학부모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555(41.7%)	389(29.9%)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291(21.8%)	568(43.7%)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285(21.4%)	114( 8.8%)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83( 6.2%)	88( 6.8%)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72( 5.4%)	117( 9.0%)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37( 2.8%)	11(0.8%)
기타	9( 0.7%)	9(0.7%)
합계	1,33(100%)	1,30(100%)

출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직접 기입하도록 한 결과 아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직업군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직업은 교사 또는 강사였다. 그다음이 연예인, 공무원, 각종 기술자, 요식업 관련업 등이었는데, 요식업 관련업에는 요리사, 제빵사, 바리스타 등이 포함되었고, 그중 현재 다문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많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바리스타를 희망 직업으로 제시한 청소년은 전체 중 7명으로 비율로 보면 전체의 0.6%였다. 그 외, 경찰, 각종 디자이너, 학자, 동물사육사, 동물 조련사, 심리학자, 통번역사, 국회의원, 대통령, 최고경영자, 국제기구 직원, 호텔리어, 방송 PD, 기자, 작가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이 제시되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특정한 단순 자격증 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수준의 진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 다문화 청소년의 원하는 직업순위>

빈도(%)

순위	직업	빈도(%)
1	교·강사	153(11.5%)
2	연예인	99( 7.4%)
3	공무원	73( 5.5%)
4	각종기술자	70( 5.3%)
5	요식업관련	61( 4.6%)
6	운동선수, 운동관련업	58( 4.4%)

순위	직업	빈도(%)
21	심리상담 및치료	20(1.5%)
22	통번역	19(1.4%)
23	예술가	14(1.1%)
24	비행기조종사	12( 0.9%)
25	작가	12( 0.9%)
26	사업가	11( 0.8%)

7	경찰	54( 4.1%)
8	디자이너	51( 3.8%)
9	회사원	48( 3.6%)
10	의료인	44( 3.3%)
11	미용관련	44( 3.3%)
12	건축가	39( 2.9%)
13	컴퓨터 프그램관련	38( 2.9%)
14	각종 학자	35( 2.6%)
15	사회복지사	31( 2.3%)
16	동물관련	28( 2.1%)
17	만화관련	26( 2.0%)
18	군인	22( 1.7%)
19	방송관련	23( 1.7%)
20	스튜어디스	23( 1.7%)

27	국제기구	10( 0.8%)
28	음악가	10( 0.8%)
29	소방관	8( 0.6%)
30	법조인	8( 0.6%)
31	최고경영자	6( 0.5%)
32	정치가	6( 0.5%)
33	호텔리어	5( 0.4%)
34	광고기획	4( .3%)
35	농축산업	3( .2%)
36	여행관련	3( .2%)
37	도서관사서	3( .2%)
38	보안, 경호	3( .2%)
	기타	13(1.0%)
	무응답	142(10.7%)

출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다문화 청소년에 이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직업명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교·강사에 대한 선호가 18.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공무원(18.0%)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어 안정적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를 강하게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의료인, 각종 기술자, 요식업, 경찰, 디자이너, 각종 학자 등 청소년의 응답과 유사하게 다양한 직종들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들을 다루어줄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범위를 훨씬 더 다양하게 넓혀주는 작업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표 5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의 원하는 직업순위>

빈도(%)

순위	직업	빈도(%)
1	교·강사	241(18.%)

순위	직업	빈도(%)
20	연예인	10( 0.8%)

2	공무원	234(18.%)
3	의료인	26(9.7%)
4	각종기술자	81(6.2%)
5	회사원	71(5.5%)
6	요식관련	52(4.0%)
7	경찰	38(2.9%)
8	디자이너	37(2.8%)
9	미용관련	35( 2.7%)
10	각종 학자	34( 2.6%)
11	운동선수, 운동관련업	27(2.1%)
12	사회복지사	24( 1.8%)
13	사업가	22( 1.7%)
14	통번역	16( 1.2%)
15	스튜어디스	16(1.2%)
16	건축가	14(1.1%)
17	컴퓨터 프그램관련	14(1.1%)
18	군인	14(1.1%)
19	법조인	12( .9%)

21	심리상담 및치료	9( 0.7%)
22	동물관련	8( 0.6%)
23	예술가	8( 0.6%)
24	비행기조종사	7( 0.5%)
25	국제기구	6( 0.5%)
26	음악가	5( 0.4%)
27	작가	5( 0.4%)
28	방송관련	3( 0.2%)
29	최고경영자	2( 0.2%)
30	소방관	2( 0.2%)
31	여행관련	2( 0.2%)
32	만화관련	2( 0.2%)
33	호텔리어	1( 0.1%)
34	도서관사서	1( 0.1%)
35	정치가	1( 0.1%)
	기타	10(0.8%)
	무응답	111(8.5%)

출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 2.2.3. 다문화 청소년 진로 의식의 변화

2016년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의식의 경우 2014년부터 3년간 조사된 내용으로 3년간의 변화를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2014년 1학년 시기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이 더욱 고정화되고,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중산층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2.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의논 상대

2016년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 <표 6>에 따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의논하는 상대를 고르라고 한 문항에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대상은 가족이나 친지로 나타났고, 다음이 친구나 선배, 학교 선생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의논하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그러나 연도별 변화의 양상을 보면, 가족이나 친지가 진로 의논 상대라는 응답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었고, 이에 비해 친구나 선배 등 또래집단과 의논한다는 응답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 선생님과 의논한다는 응답 역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선배에 비해 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 상담교사의 보급 등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비교적 전문적인 진로상담 및 의논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로,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으나 2014년과 2015년 응답비율로 보면 학교 선생님과 의논한다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진로에 대해 논의할 수 없고, 학교 교사와의 상담이 안 되며, 아무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지지층이 약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그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 6 2016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

빈도(%)

대상	2014	2015	2016
가족이나 친지	687(51.6%)	634(47.6%)	627(47.1%)
친구나 선배	243(18.2%)	295(22.1%)	354(26.6%)
학교 교사	141(10.6%)	149(11.2%)	172(12.9%)
지역사회 기관(청소년 관련 센터)교사	7( 0.5%)	16( 1.2%)	9( 0.7%)
기타	16( 1.2%)	14( 1.1%)	23( 1.7%)
없음	230(17.3%)	215(16.1%)	147(11.0%)
무응답	8( .6%)	9( 0.7%)	-
합계	1,332(100%)		

출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16.

### 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 실태 현황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희망하는 직업이 모호한 상태로 파악되었고.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며, 향후 진로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발달과정에서도 가족의 지지 및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외국인 어머니와의 언어 및 문화장벽으로 인해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착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인다.<sup>2)</sup> 그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적절한 부모

1) I. S. Jang and H. J. Kim, Articles : 한국 다문화 청년의 학업 성과 및 진로 지원 체계, 민족 연구, (2014), Vol.60, 50~67쪽.

2) J. Lee와 I. Oh,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과 애착 :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 과학

역할 수행을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 관여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한 주변인 등을 통한 멘토링을 제안하고 있다.<sup>3)</sup>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 가족의 문화적 배경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문화적 자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극복해야 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과 진로 선택과정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진로 정보제공,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적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진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인 교사와 또래 역할도 중요한 지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진로의식과 직업관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배경을 살리는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경우 이들의 진로 효능감과 진로성 속도가 향상되었고, 이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sup>4)</sup>

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법적 지위, 언어역량, 가족환경, 적응과정 등 많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포부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sup>5)</sup>, 연구결과에 따라 진로의식이 낮음을 보이기도 한다.<sup>6)</sup> 이들은 대체로 일반 청소년들에

---

연구, (2013), Vol.14, No.3, 193~216쪽.

3) 이영경, 윤준호, 방현경, 부모의 긍정적 진로 참여가 청소년의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2012), Vol.19, No.2, 129~154쪽.

4) 김선영, 다문화 청소년의 경력 개발 경험, 청소년 시설 및 환경에 관한 현상 학적 연구, (2015), Vol.13, No.2, 121~134쪽.

5) I. S. Jang and H. J. Kim, Articles : 한국 다문화 청년의 학업 성과 및 진로 지원 체계, 민족 연구, (2014), Vol.60, 50~67쪽.

비해 진로 정체감이 낮은 경향이며,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심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겪은 차별 경험은 진로 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냄을 보인다.<sup>7)</sup>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발달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문화 배경에 기인한 것인지, 계층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계층을 고려하여 교육적 소외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한국의 빈곤층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미등록 지위로 인해 입시교육 시스템 진입이 불가능한 반면, 빈곤층 자녀의 경우 제도적 제한은 없지만, 현재의 교육 경쟁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음을 보인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현신적 가족의 기대와 함께 이주를 통한 미래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반면, 빈곤층 청소년들의 경우 보살핌의 기능을 상실한 가족 대신, 거리에서 만나는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미래 설계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즉각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sup>8)</sup> 결국 이주 배경이 일률적으로 진로의 한계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등이 관련되어 오히려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

6) 오세영, 서디, 청년 이민자의 진로 의식, 진로 준비 행동과 사회적 지원, *중등교육지*, (2012), Vol.60, No.2, 517~552쪽.

7) B. Yu and G. Kim, 직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 이민 청소년과 비이민 청소년 (한국 부모 가족)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015), Vol.67, No.1, 5~29쪽.

8) G. Min, 초 국가적 교육 소외 비교 연구, *청소년복지학회지*, (2009), Vol.11, No.4, 225~252쪽.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표집

연구대상은 농촌지역 00 중학교 다문화 학생 1학년 11명, 다문화 학생 학부모, 다문화 학생의 담임교사, 다문화 관련 업무 교사,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2020 본교 다문화 1학년 학생 현황표>

순	학년	이름	국적		한국어 숙달정도	교육지원영역	중도입국 년월
			부	모			
1	1학년	송*주	한국	베트남	상	필요없음	
2	1학년	신*나	한국	베트남	상	학습지원	
3	1학년	이*진	한국	베트남	상	학습지원	
4	1학년	이*영	한국	베트남	상	학습지원	
5	1학년	노*빈	한국	베트남	상	필요없음	
6	1학년	김*우	중국	중국	중	학습지원	
7	1학년	이*우	중국	중국	상	학습지원	
8	1학년	김*우	한국	대만	상	학습지원	
9	1학년	김*은	한국	베트남	상	학습지원	
10	1학년	윤*나	한국	베트남	상	학습지원	
11	1학년	동 *휘	한국	베트남	전혀못함	한국어 지원	2020.06.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자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국어 숙달 정도는 올해 6월에 중도 입국한 베트남 출신 1학년 학생과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을 제외한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어 숙달 정도 상에 해당하여 학습 지원이 필요 없으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자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학습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율동아리와 다문화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3.2. 연구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은 크게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초분석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심층 분석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 탄력성을 중심으로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문헌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중학교 1학년 12명의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진로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된 진로 자율동아리 (어깨펴: 함께 어울리고 진리를 깨우쳐 꿈을 펼치자는 의미)와 비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티쿤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 자율동아리의 지도교사 역할을 담당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저조한 학습의욕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대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스토리텔링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새내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학년 선배들을 멘토로 연계하는 교내 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문화 1학년 중학생으로 구성된 자율동아리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2020 자율동아리 다문화학생 현황표>

동아리명	어·개·펴 진로동아리			티쿤올람 자율동아리	
지도교사	한 채 운				
동아리 구성원 (11명)	순	학년	이름	학년	이름
	1	1학년	윤*나	2학년	강*주
	2	1학년	김*은	2학년	최*수
	3	1학년	송*주	2학년	백*아
	4	1학년	신*나	2학년	이*진
5	1학년	이*진	2학년	이*현	

	6	1학년	이*영	2학년	권*지
	7	1학년	노*빈	2학년	오*선
	8	1학년	김*우	2학년	서*솔
	9	1학년	이*우	2학년	박*경
	10	1학년	김*우	2학년	전*빈
	11	1학년	동*휘	2학년	서*현

1학년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멘토-멘티 연계를 하여 활동한 결과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 티쿤올람 자율동아리 활동



△ 어깨피 진로동아리 활동

### <그림 1 어깨피 진로동아리와 티쿤올람 자율동아리 활동 사진>

다문화 중학생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조한 학습의욕을 상승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진로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울산대 대학생을 멘토로 구성된 스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림 2 나를 찾는 스토리텔링 스쿨 프로그램 운영 사진>

스토리텔링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다문화 중학생을 위해 자신과 타인,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은 자존감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적극적 자기 주도적 성취동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 멘토로서 중학생 멘티에게 맞는 세상을 바라보는 넓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둘째, 다양한 스텔스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셋째, 선후배의 자율동아리 연계 심화 활동으로 나와 타인, 세계에 대한 감수성 신장을 도모하고, 넷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및 구체적 진로 탐색력 고취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대학생 멘토에게는 다문화 인식 및 나눔 문화 제고 등 가치 있는 활동 기회 제공하는 다문화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 적응력 강화 및 학습 능력 향상의 계기가 되어 서로 win-win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동안 참여 학생들의 진지한 적극성과 활기찬 참여 모습이 주는 변화는 자존감 낮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프로그램 활동이었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교육 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적 지식 나눔 문화 확산이 될 것이다.

## 4.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관련 실태 분석

### 4.1.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현황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교육부에서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에서 다문화학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포괄하여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은 아니지만, 글로벌 브리지 사업, 다문화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학습 지원과 진로와 연계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취업 진로 지원으로 다문화 직업 대안학교인 서울 다솜학교 운영과 일반고에 진학하는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미용, 요리,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 등을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3월 다문화정책 시행 10년을 맞아 기존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주기별 진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인재를 발굴하여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과 보다 직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내일을 Job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계학과, Plant 설비과, Smart 전기과 등 3개 전공에 각 전공별 15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육비 및 숙박비 등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어 교육,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9 2016 주요 중앙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진로지원 사업>

중앙 부처	진로 지원 정책 및 주요 사업	
교육부	제2차 진로 교육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 대상 확대</li> <li>•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li> <li>• 균등한 진로교육기회 제공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li> </ul>
	글로벌 브릿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학생 영재교육 지원 (수학·과학, 글로벌 리더십, 언어, 예체능) 분야 영재 발굴,</li> <li>• 초등생 위주 2016년 현재 17개 사업단 운영</li> </ul>
	다문화 멘토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 지도 등 멘토링(2016년 기준 전국 91개 대학 참여, 4500여 명 참여)</li> </ul>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운영(서울 다솜학교, 컴퓨터 미디어과 20명, 호텔관광과 20명)</li> <li>• 일반고진학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지원기관 지정 운영 (2015년 15개 기관)</li> </ul>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2016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정책 시행 10년 기존 정책 진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li> </ul>
	다재다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역량 개발 및 가족관계 개선, 사회성, 리더십 개발 지원(2016년 8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작)</li> </ul>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학습 여건 조성</li> <li>• 이중언어역량 우수인재 발굴 DB 구축</li> <li>• 어학능력 갖춘 인재 선발 차세대 무역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KOICA 해외사무소 등에 다문화청년 인턴 채용 추진</li> </ul>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지개 Job아라 16-24세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진로설계 과정(총 10주 230시간)</li> <li>• 내일을 Job아라(16년 6개소 추진) 실질적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li> </ul>
고용	한국폴리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대안학교(2012개교) 컴퓨터 기계학과,</li> </ul>

노동부	다솜 학교 운영	Plant 설비과, Smart 전기과 각 전공별 15명 정원, 교육비 및 숙박비 등 국비 지원 한국어 교육,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	---

## 4.2.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요구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진로지원 혜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여성가족부 주관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이에 대한 기본 실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0>을 통해 간추려 제시하였다. 2015년에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이나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장 많이 받았던 지원은 학습지원으로 29.8%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지원과 관련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 경험은 16.6% ‘직업기술 훈련’은 3.1%, ‘일자리 소개’를 받은 경험은 2%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들의 경험 정도는 소득 수준별, 연령별, 학교 재학 여부, 국내에서 성장하였는지, 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달라지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는 교육 및 진로 지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59.6%에 이르고 있으며, 진로상담 및 교육 수혜 경험은 16.4%에 불과하였다.

<표 10 2015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진로 관련 지원 수혜 경험 >

(단위: 명, %)

		경험 없음	한 국 어 교육	외 국 계 부 모 나 라 언 어 교육	한 국 사 회 적 응 교육	외 국 계 모 국 문 화 이 해 교육	학 습 지 원	학 습 친 구 가 족 이 성 관 련 상 담	진 로 상 담 및 진 로 교육	직 업 기 술 훈 련	일 자 리 소 개
전 체	비율	50.6	7.5	7.1	5	4	29.8	5.6	16.6	3.1	2
	인원	41,749	6,226	5,857	4,102	3,263	24,581	4,625	13,710	2,559	1,626
성 별	여성	48	7.7	8.7	5.3	4.5	31.9	6.7	18	2.6	1.9
	남성	53.2	7.4	5.6	4.6	3.4	27.8	4.5	15.3	3.6	2
연 령	9-11세	46.6	7.5	10.2	6.5	5.2	41.2	3.1	6.6	0.1	0
	12-14세	45.8	5.8	8.4	5.6	5.2	35.5	6.8	22.1	0.3	0.1
	15-17세	49.4	4.2	5.6	3.5	3.4	29.6	6.2	27.2	3.5	0.3
	18세 이상	59.6	11.1	3.7	3.7	2	13.1	7	16.4	8.4	6.6
재 학 여 부	재학	48.3	6.6	7.8	5.4	4.5	33.9	5.8	17.8	1.8	0.6
	비재학	63.2	12.9	3.3	2.9	1.2	7.7	4.7	10.3	10.4	9.5
성 장 배 경	국내 성장	54.2	2.8	5.8	3.3	3.8	29.2	5.2	16.8	2.3	1
	외국 거주 경험	44.4	6.7	11.6	7.2	5	37.9	6.7	18.4	1.3	1
	외국 에서 주로 성장	46.1	27.4	5.2	8.2	3.1	19.9	5.4	13.3	8.9	7.3
가 구	100만원 미만	48.3	7.5	5.3	7.4	4.1	36.9	5.1	14.3	4.7	2.8

소득 특	100-200 만원 미만	47.2	7.5	5.3	5.1	2.9	35.8	7.1	16.4	2.6	0.9
	200-300 만원 미만	49.2	7.7	7.1	4.8	4.1	31.6	5.4	16.3	2.7	1.3
	300-400 만원 미만	52.6	6.5	8.2	5	3.7	27.1	5.5	19.4	2.4	2.4
	400-500 만원 미만	55.3	7.9	7	6.4	4.8	23.9	3.8	16	3.6	3.7
	500만원 이상	53.2	9.6	9.3	2	5.5	21.7	5.6	12.8	6	2.9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 관련 지원 요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이 요구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해당되는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합하여 살펴본 결과 진로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요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3.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기술훈련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 일자리 소개의 경우는 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 및 취업과 관련 지원 요구가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진로 및 취업 지원 요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관련 지원 요구>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
전체	비율	53.7%	42%	39%
성별	여성	57.6%	41%	38%

	남성	49.9%	42.8%	40%
연령	13세-14세	52.7%	31.3%	23.7%
	15세-17세	61.2%	42.3%	33.5%
	18세 이상	49.6%	47.4%	50.6%
재학 여부	재학	56.5%	38.2%	33.1%
	비재학	45.3%	53.1%	56.8%
성장 배경	국내 성장	53.2%	35.9%	32.2%
	외국거주 경험	53.3%	41.8%	38.6%
	외국에서 주로 성장	55.3%	57.6%	56.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2%	43.2%	38%
	100-200만원 미만	60.6%	46.9%	42.6%
	200-300만원 미만	57.5%	39.5%	38.6%
	300-400만원 미만	51.4%	44%	39.5%
	400-500만원 미만	44.6%	40.4%	37.4%
	500만원 이상	46.5%	34.7%	34.2%

#### 4.3. 농촌지역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원 방안 모색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대, 사대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습과 숙제지도, 문화체험 등을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 지도비용으로 수역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과 봉사학점이 부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교육청 다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문화 학생 기초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외부강사 4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지원 방안으로 첫째,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력을 신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의미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학생 자율 동아리 운영 공모에 당첨되어 교육

청 예산으로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어깨띠 진로 자율동아리와 비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티쿤올람 자율동아리를 울산대 대학생 멘토들로 구성된 스토리 텔링 스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비다문화 선배들이 다문화 1학년 학생들의 멘토 역할 하면서 서로 win-win 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강사를 구하게 되면서 학교와 지역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 강사 등록이 공식화되어 다문화 강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내년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학교 현장으로 모셔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중언어를 활용하는 유능한 한국형 오바마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부모님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개인별 특색과 성향에 맞는 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5. 논의 및 나가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정책과 관련 요구 실태를 살펴본다. 중앙정부 차원의 진로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다양성과 공급 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수혜 경험은 여전히 많지 않으며, 진로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관련 역차별 논의나, 선주민 취약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길 근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지원을 모색함으로써 담론 수준의 역차별이나 반다문화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개선을 위하여 먼저 다문화 집단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련 지원 대상으로 단순히 민족이나 인종적 구분을 하거나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한국 체류 및 적응 기간, 사회계층을 고려하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출생하여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외국 출생 후 중도 입국한 자녀들과 외국인 자녀들의 경우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교 경험으로 크게 공감한다. 특히 외국인 자녀들의 경우는 출생지를 구분하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인지, 부모와 함께 이주한 학생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이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즉, ‘다문화 학생’ 집단 내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학생’ 집단을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 수준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다문화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계층적 접근을 통해 교육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다문화학생 등이 사회 내 소수자로서의 위치에 있지만, 이들을 획일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 거주 기간, 월 평균 가구 소득 분포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200-300만 원의 소득을 보이는 가구는 30.4%이며, 100-200만 원의 경우 23.8%, 300-400만 원의 경우 20.5%, 400-500만 원의 경우 9.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의 경우 63.9%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인 6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4대 주요 추진과제 중 제2영역으로 ‘진로교육대

상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영역의 8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 세부 과제로는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과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을 포괄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즉, 다문화 집단 전체를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여기게 되는 사회적 낙인의 소지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다문화가정도 사회적 배려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역차별 소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로지원 과정에서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진로·진학 교육 실시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요 방안으로 글로벌 브리지 사업과 이중언어 강점을 살리는 진학·취업 상담 보조 자료 제공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진로개발 관련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현장의 지원방식은 다문화 학생을 일괄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포괄하여 지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선주민 취약집단에 대한 역차별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회성 체험 등이 주를 이루어 실제적으로는 수혜 당사자들도 실질적 지원효과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위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원 과정에서 경제 수준, 가족 자본,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여부 등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여 진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학생 혹은 다문화 청소년 집단 내 특성을 재고하고,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영역에서는 선주민 취약청소년들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 진로 지원을 위한 대상이 단순히 이주배경의 유무로 구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하나의 규정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민족 집단, 언어적 소수자, 저소득 집단,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교육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실천을 의미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요구 집단과 그 요구에 대한 반응 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되어 왔듯이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와 취약계층 진로 지원은 여러 가지 지표와 사회적 요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봉환 · 강은희 · 강혜영 · 공윤정 · 김영빈 · 김희수 · 선혜연 · 손은령 · 송재홍 · 유현실 · 이제경 · 임은미 · 향매향(2018). 진로상담(2판). 서울:학지사.
- 김선영(2015). 다문화 청소년의 경력 개발 경험, <청소년 시설 및 환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67권 1호, 121쪽~134쪽.
- 김지연(2017).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2017 다문화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88쪽~402쪽.
- 남혜경 · 이미정(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토링 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5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47쪽~66쪽.
- 류성창 · 김재우 · 이윤옥(2016). 다문화 학생의 진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권 6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451쪽~481쪽

- 민가영(2009). 교육 소외경험에 대한 트랜스 내셔널 비교연구:이주 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학회지> 11권 4호, 225쪽~252쪽.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20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1쪽~396쪽
- 양계민(2017).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정책제언(연구보고 17-R1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김주영·(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성배·서덕희(2012). 중도 입국 청소년의 진로 의식, 진로 준비 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권 2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517쪽~552쪽.
- 유비·김기현(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 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권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5쪽~29쪽.
- 이민지, 오인수(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 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3쪽~216쪽.
- 이영경·윤준호·방현경(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 참여가 청소년의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권 2호, 한국청소년학회, 129쪽~154쪽.
- 조승연, 이은주(2012). 다문화가정의 조음 음운 장애 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7권 3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414쪽~423쪽.
- 조혜영(2017).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개선 방안 모색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권 11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689쪽~699쪽.

조혜영, 김경임(2018).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 <청소년 문화포럼> 54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61쪽~296쪽.

#### 필자 소개

성 명 : 한채운  
소 속 : 울산 남창중학교 교사  
주 소 : (449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로 66  
전화번호 : 010-7665-5236  
전자우편 : cloud41@hanmail.net

투고일: 2020. 7. 20 / 심사일: 2020. 8. 10 / 심사완료일: 2020. 8. 16